"관객과 교감 통해 세상 보는 눈 넓어졌어요"

16일 무각사 로터스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고 있는 김설아(오른쪽) 작가가 박인선 작가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두 사람은 올해 광주비엔날레에 참여했다.

김설아·박인선 작가 광주비엔날레 참여 소감

"마리아 린드 총감독 갑자기 작업실 찾아와 참여 제안"

"작품 설명·평가 피드백 '인프라스쿨' 프로그램 인상적"

김작가 로터스갤러리·박작가 신세계갤러리서 개인전

"광주비엔날레 참여는 한단계 성숙한 계기가 됐습니다. 현장 반응, 다른 작가와의 교감을 통해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졌어요. 앞으로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16일 만난 김설아(여·33)여·박인선(여·34) 작가에게서는 큰일을 무사히 치른 듯한 느긋함이 느껴졌다.

두 작가는 지역 출신으로서 지난 6일 폐막한 '2016 광주비엔날레' 본전시 참여작가에 이름을 올려 화제를 모았다.

이들은 비엔날레가 끝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본인의 작품세계를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개인전을 잇따라 갖는다. 김 작가는 14일부터 12월6일까지 무각사 로터스갤러리에서, 박 작가는 18일부터 29일까지 신세계갤러리에서 전시를 연다.

비엔날레 참여작가로서 첫발을 떼는 두 작가를 로터스갤러리에서 만나 비엔날레 참여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봤다.

김 작가는 "이번 전시는 올초부터 계획돼 있었는데 그땐 비엔날레에 참여하게 될지 몰랐다"며 "큰 전시를 끝내고 나니 마음이 한결 여유로워졌다"고 말했다.

김 작가는 비엔날레에 일상에서 본 벌레, 깃털, 살덩어리 등을 통해 내면의 경험을 표현한 회화 'Silent Voice', 'Breath to Breath' 등 3작품을 출품했다.

박 작가는 반쯤 허물어진 주택이 크레인에 의해 뿌리째 뽑힌 모습을 그린 '뿌리'시리즈를 선보였다. 독특한 시각적 연출에 관람객들은 발길을 멈추고 한참을 쳐다보는 작품들이었다. 이번 개인전에도 출품한다.

박 작가는 "비엔날레는 개인적으로 좋은 경험이었지만 이로 인해 작품에 큰 변화를 준다거나 그러진 않을 계획이다"며 "시간 흐름대로 자연스럽게 작품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작가들은 참여 과정을 묻는 질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동시에 대답했다.

"지난 5월 작가 리서치 중이었던 마리아 린드 총감독이 작업실을 방문했어요. 작품을 쭉 보시고는 '(작품 소재로)왜 광주를 선택하게 됐냐'고 물어보시더군요.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와 작품을 설명하며 대화를 나눴죠. 며칠 뒤 재단쪽에서 참여작가로 선정됐으니 이메일을 확인해 보라고 연락오더군요."(김설아)

"저도 감독님이 작업실로 찾아오셨어요. 원래는 대인시장에서 머물며 큐브 형태로 건물의 옛 모습과 현재 모습을 표현한 작품을 출품하려고 했어요. 작품 규모가 작으니 '뿌리'시리즈를 전시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았죠."(박인선)

비엔날레 전시는 수많은 사람이 직설적으로 내뱉는 작품에 대한 평가를 들을 수 있었다.

김 작가는 "관람객 신분으로 전시장을 방문해 내 작품 앞에서 서면 '좋다', '나쁘다'는 말이 귀에 들어왔다"며 "많은 사람들에게 작품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기에 신선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작가들은 전시 보다도 '인프라스쿨', '월례회' 등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고 작품을 설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의미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김 작가는 "'인프라스쿨'에 참여해 사람들에게 내 생각을 알려주고 토론도 하며 많은 것을 느꼈다"며 "단순히 전시만 하기보다는 설명하고 알리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박 작가도 "똑같은 생각이다"며 "다른 사람 생각을 듣고 내 작품을 다각도로 설명하는 것도 하나의 작업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동의했다. 이어 "작가를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문의 로터스갤러리 062-383-0108, 신세계갤러리 062-360-127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박인선 작 '뿌리'

고흥 도화헌미술관 김종일 화백 기획초대전

30일까지 신작 위주 전시

김하린 시인은 70대 중반 김종일 화백을 가르켜 '호기심 많은 젊은이'라고 부른다. 멈추지 않는 창작 정신으로 늘 새로운 작품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김 화백이 처음으로 구상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를 연다. 고흥 도화헌미술관에서 30일까지 김종일 기획초대전 '여행(a Voyage)'이 진행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기존 '순수'시리즈를 비롯해 최근에 작업한 구상회화 '여행'시리즈를 출품한다.

캐리어를 끌고 어딘가로 떠나고 있는 남자 뒷모습을 그린 '여행'은 회색, 주황, 분홍, 초록 등 다양한 배경색깔로 여러 분위기를 연출한다. '순수' 시리즈에서 보여줬던 다채로운 색상과 조형미를 이 작품에서도 엿볼 수 있다.

캐리어에는 자유의 여신상, 모아이, 스핑크스, 돌하르방 등의 사진을 배치해 여행 목적지를 알려주고 있다.

그밖에 다양한 색채가 돋보이는 '순수'에서는 밝은 세상을 기원하는 마음이 전해진다.

'여행'

김씨는 홍익대 미술대학, 중앙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제2회 광주비엔날레 조직위원, 전남대 예술대학장, (사)에뽀끄 이사장을 역임했다.

1960년부터 최근까지 개인전 30회를 열고 유럽, 미국, 아시아에서 단체전에 참가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문의 061-832-133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현대서예…글씨로 그린 그림

갤러리 리채 30일까지 김명석 개인전

현대서예가 수민 김명석 작가가 갤러리 리채에서 30일까지 '일필휘지'를 주제로 개인전을 연다.

김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한번의 붓질로 전통 서예글씨를 마치 그림처럼 표현하는 작품을 선보인다.

그는 전통 서예의 현대화를 위해 영어 단어나 한자를 '문자 추상' 형식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 화폐나 코카콜라 등을 콜라주 형식으로 표현하며 자본주의 시스템을 비판한다.

작품 'Package'는 파란색 영어 글씨로 캔버스를 뒤덮고 배경에는 코카콜라 캔을 배치했다. 현대 대량생산 체제를 표현한 작품이다.

'탐욕'은 화면 중앙에 그려넣은 입술에 시선이 간다. 시대를 고뇌하고 사회를 걱정하는 대신 TV에서 흘러나오는 오락프로그램에 관심을 쏟고 욕망과 쾌락을 좇는 현대인을 비판했다.

전시 기간 먹과 화선지를 재료로 콜라주 작품을 만들어보는 어린이 대상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탐욕'

김씨는 원광대 서예학과 1기 졸업생으로 조선대 미술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대한민국 서예대전 특선 3회, 전남 미술대전 특선 4회 등 다수 대회에서 입상했다. 현재 대한민국서예대전 초대작가, 한국서예협회 이사·청년분과위원장, 광주서예협회 부지부장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412-0005.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